



# 이 작은 칼에 담긴 절개와 기개 恨을 두드리고 魂을 불사른다



## 3대째 장도(粧刀) 알리는 박종군 광양 장도박물관장

영화 '조선 미녀 삼총사'에 출연한 하지원이 칼,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한효주가 들고 나온 칼, SBS 사극 '장옥정'에서 김태희가 지녔던 칼의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미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있고 지냈던 광양 장도(粧刀)다.

장도란 칼집이 있는 한 뺨 정도의 작은 칼을 뜻한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 해 주머니칼 '낭도'(囊刀)라고도 한다. 사대부 양반 가문의 부녀자들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휴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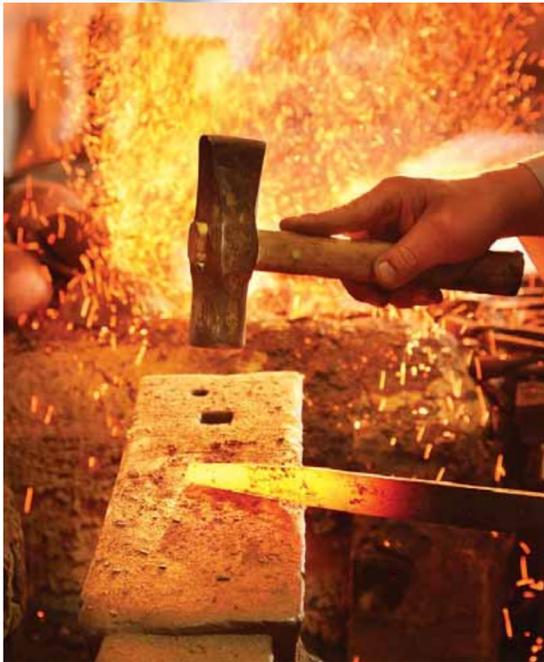
장도장(중요 무형문화재 제60호)인 박종군 광양 장도박물관장 가족이 3대를 이어 광양 장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절개와 기개 상징 3대째 제작=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 12월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박관장을 '장도장(粧刀匠)' 보유자로 선정했다. 박관장은 지난 6월 별세한 도암 박용기 장도장 명예보유자의 아들로 미술대학 졸업 후 아버지를 도와 장도 제작기술을 습득했으며, 부친의 대를 이어 장도 보유자가 됐다.

또 박관장의 뒤를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아들 남중(23·건영(17) 군도 장도의 명맥을 잇기 위해 함께 작업하고 있다.

박관장은 "장도는 여자들의 순결을 지키는 도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상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신적 지조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도구로 장도를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여성용 장도에는 예술적 가치를 주기 위해 나뭇잎, 국화, 꽃나무, 난 등을 새긴다. 또 남성용은 누각, 문구, 산수, 박쥐, 운학 등을 새긴다고 설명했다.



## 미대 졸업후 부친 도와 제작기술 배워 장도 아름다움 전파·후대 전수 온힘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 기록되게 할 것

또 실용성, 호신용, 예물용 등 용도를 나눠 제작해 편리한 도구를 넘어 한민족의 한(恨)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박관장의 선친인 박용기 명예장도장은 60여 년간 외길을 걸어온 장도 명인으로, 1978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우리의 문화유산을 외롭게 계승 발전시켜 왔다.

박관장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 밤새 장도에 달아야 할 때를 만들고, 친인척들에게 부친의 장



도 제작비를 벌려다 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란 박관장은 "빨리 커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야겠다고 생각으로 '장도정신'을 전수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부친의 뜻을 이어 광양 장도박물관과 전수관을 운영하며, 문화유산인 장도의 혼을 전승·발전시키기 위해 29년째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다.

◇장도 예술성, 전세계에 홍보=장도는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브랜드 위원회 홈페이지에

계재돼 전세계에 홍보되고 있다.

박관장은 국내외 박물관 초청 행사 참석 및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장도의 혼과 장도의 예술성·우수성을 알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광양 장도 박물관 1층 전시실에는 박용기 장도 명예보유자의 은장도 300여 점과 현대작가의 칼 100여 점, 국내외 희귀 칼들이 전시돼 있다. 또 장도의 유래 등을 영상물로 볼 수 있다.

2층 전시실은 장도장의 작품과 유물 200여점, 한국 칼의 역사적 발달과정, 박용기 장도장의 장도 제작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체험학습실, 세미나실, 전통문화 명품숍, 카페테리아 등이 갖춰져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옛것에 대한 의미와 전통을 배우는 체험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박관장은 "삼국시대부터 철이 많이 생산된 광양지역은 자연스레 장도 및 칼을 제작하는 고장이 됐다. 부친이 장도 제작에 몸담았던 1978년에는 10여 종의 장도 제작이 고작이었다"면서 "과거 국내 모든 장도장들의 작품을 섭렵하며 작품을 재현 및 재창조해 오늘날 광양 장도가 한국을 대표하는 장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충·효·의·예·치와 절개가 담긴 장도정신을 잇고, 무형문화재를 예술로 승화시켜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기록되게 하겠다"면서 "장도 정신은 곧 도덕정신인 서훈에게 물려주기 위해선 문화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의(061-762-4853).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 2014 공공정보화 경진대회 광양시, 국무총리상 수상



광양시가 최근 전경련 회관 별관 1층 연회실에서 열린 '2014 공공정보화 대상(大賞)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안전행정부 주최, 한국정보화진흥원(NIA)·한국 지역정보개발원(KLID) 주관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광양시는 '시민 안심 광양만권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사업'의 사례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시민 안심 광양만권 대기환경 감시시스템'은 24시간 대기환경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여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춰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과 건강권을 확보하여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는 시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2012년 u-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을 추진했다.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및 전국 자치단체에서 접수한 57건의 정보화 사례에 대해 서면심사 등을 거쳐 최종심사에 오른 전자정부서비스 우수사례 11건(공공부문 5, 민간부문 6)을 대상으로 열린 발표를 거쳐 결정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보화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민과 기관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구현으로 더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승진 제한 등 내달부터 시행

광양시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따라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직원들은 징계처분 이후 최초 1회 성과상여금 지급시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6급 이상 보직자는 무보직 인사 조치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시 동승자 및 부처장에 대해 연대 책임제를 시행하고,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수·금요일에는 SMS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박원수 감사담당관은 "공직자로서 음주운전 행위는 신분상·재정상 손실은 물론 법적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시 공직자 모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앞)

#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문,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들과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항감정평가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